

방글라데시 - 세계의 섬유 불황 속에서도 수출 확대

최근 일본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섬유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구미(歐美)의 어패럴들은 훨씬 이전부터 방글라데시로부터 섬유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H&M(Hennex & Mauritz AB)은 방글라데시에 100개 이상의 위탁 공장을 거느리고 있는데, 앞으로 중기적으로 주문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은 물론 값싸게 섬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사회 보장비(社會 保障費)를 포함한 봉제 노무비(縫製 勞務費)가, 중국에서도 노무비가 싸다고 하는 내륙부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EU로 수출하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크다.

2008년 7월 ~ 11월의 방글라데시 섬유 제품 수출 실적을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면 섬유 제품 총 수출액은 65억 5,100만 달러이며, 내역을 보면 니트 의류가 27억 3,700백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백(布帛) 의류는 23억 500만 달러 수출로 35.2%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의류가 전체 수출의 3/4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7월 ~ 11월의 실적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26.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섬유 제품 수출액(2008년 7월 ~ 11월)

	수출액(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섬유 제품 합계	6551	26.8
니트 의류	2737	34.6
포백 의류	2305	24.8
가정용품	141	22.4
이물류(履物類)	85	38.8
타월류	57	26.6
직물류	31	203.3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주요 수출 대상인 구미 시장에서, 소매점이 값싼 상품으로 더욱 크게 시프트(shift : 방향을 바꾸다)함으로서, 생산 코스트가 낮은 방글라데시의 강점을 더 잘 나타내고 있다.

주력 시장인 EU에서는, 방글라데시가 LDC(Least Developed Countries : 後發 開發 途上 國)이므로, 규정된 원산지 규칙을 다 채우면 쿼터(quota : 商品 割當量)도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만으로도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포백 의류의 50%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은 이와 같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운 수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큰 공장들은 “중장기적인 영향은 알 수 없으나, 단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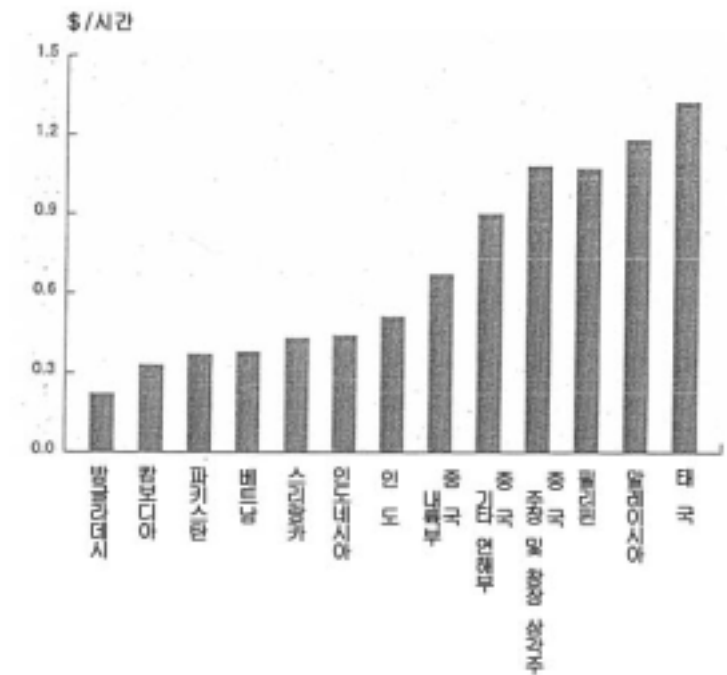
이들 큰 기업은 ① 저가격 제품의 판매는 경기와 상관없이 없다 ②원료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게는, 코튼 등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의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자진해서 적극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중소 공장에서는 금융 위기를 이유로 거래 가격이나 납기를 다시 교섭, 조정해야 하거나, 바이어(buyer)가 새로운 리베이트(reb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수출이 둔화되는 것을 염려스럽게 보는 사람도 있다.

방글라데시의 섬유 제품 수출은 봉제품이 가장 많다. 봉제품은 생산 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값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봉제 노무비는 사회 보장비를 포함하여 1시간에 불과 0.22 달러라고 태국 섬유 연구소(THTI)에서 밝히고 있다. 아시아의 섬유 생산 거점 중에서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는 가장 싸다.

도표에서 노무비가 제일 높은 나라인 태국은 1시간의 봉제 노무비가 1.29 달러 ~ 1.36 달러로, 방글라데시의 6배이다. 중국은 크게 내륙부(內陸部)와 연해부(沿海部)로 나누었으며, 연해부는 이 중에서도 가장 활기찬 산업 지역이라는 주장 삼각주(珠江 delta)와 창장 삼각주(長江 delta : 揚子江 delta) 지역을 하나로 묶어 따로 다루고 있다. 중국의 주장 및 창장 삼각주 지역은 1.08 달러로 4.91배이고, 기타 연해부는 0.86 달러 ~ 0.94 달러로 4.09배이며, 내륙부는 0.55 달러 ~ 0.80 달러로 3.08배이다.



출처 : 태국 섬유 연구소

도표 - 아시아 섬유 생산 거점의 봉제 노무비(사회 보장비 포함)

그 외의 나라의 1시간당 노무비를 소개하면 캄보디아가 0.33 달러로 방글라데시의 1.5 배이고, 파키스탄은 0.37 달러로 1.68배, 베트남은 0.38 달러로 1.73배, 스리랑카는 0.43 달러로 1.95 배, 인도네시아가 0.44 달러로 두 배, 인도가 0.51 달러로 2.32배, 필리핀이 1.07 달러로 4.86배, 말레이시아가 1.18 달러로 5.36배이다.♣